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는

일본의 아마추어 카메라맨과 한국의 프로 카메라맨이 서로의 작품을 전시하는 한일 '사진과 아트교류' 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5회째다. 무료입장 가능하며 4월 3일~4월 5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열린다. (02)765-301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를 연다. '책 속으로의 여행', '어린이 책과의 만남', '마음을 여는 책', '도서관에서 놀기' 등 총 12강좌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한다. 독서에 대한 흥미유발과 도서관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좌 구성으로 어린이 청소년의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강좌는 4월 18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에서 무료로 운영하며, 3월 20일부터 홈페이지(www.nlcy.go.kr)를 통해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02)3451-0774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3월 13일부터 신규 전시 '꼬마세계시민' 등을 리뉴얼해 열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의 어린이를 위한 상호작용 전시로 개관 12주년 기념전이다. '꼬마세계시민'은 다양성과 평화를 주제로 사회적 요구와 교육계의 동향을 반영해 총 12점의 전시 22개의 아이템으로 구성돼 있다. (02)2143-3600 / www.samsungkids.org

전남 장흥 정남진에서는

'장흥 봄나들이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5월 6까지 계속되는 행사에서는 '당신도 예술가', 영화 '천년 화' 시사회, 가무와 전국제전, 키조개 축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진다. (061)860-0223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유토피아-이탈리아 판화 400년전'이 4월 25일까지 열린다.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www.uac.or.kr)에서는 르네상스의 본거지인 이탈리아 피렌체에 소장된 고리치넬 판화 100여점을 소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031)828-584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몽골 전통복장.

몽골의 전통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몽골대탐험전 어린이들에게 인기다.



떡볶이 체험



계르몽작스



함석발굴체험

“가족 배설물이 연료?...몽골 탐험 가볼까!”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몽골대탐험' 전



석, 식물 표본 등이 약 600여점 정도 빼곡하게 전시돼 있다. 아이들은 주로 동물박제에 호기심을 보인다. 특히 몽골 산악지방에 살며 추위에 견디기 위해 두툽한 발을 가진 눈표범이 시선이 끌린다. 어떤 아이는 "살아서 만났다면 더 좋았을텐데"라며 아쉬워하기도 한다. 이제 다음 체험관은 생활탐험장이다. 아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며 살고 있는 몽골인 특유의 정서가 느껴지는 채

"몽골 사람들은 연료로 뭘 썼을까요? 여긴 나무가 참 귀해서 가족의 배설물을 딱딱하게 굳혀 연료로 썼다고 해요." 배설물을 주워 담은 기구 아락(담는 통)과 사바르(잡취처럼 생긴 도구)를 보며 아이들은 한바탕 까르르 웃는다. 몽골이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세계 최대 화석발굴지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몽골체험전에서도 발굴체험은 필수다. 전시 기획팀에서 미리 모래 속에다 프

그래요~!" 직원 아버지의 너스레에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 한바탕 웃음이다. 이어지는 곳들은 작업공작소다. 공작소는 미니어처 게르를 직접 지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자연탐험장에서 봤던 몽골 나뭇잎을 만들어 코팅, 기념품으로 챙겨갈 수 있는 공작소에서는 '어서오세요'라는 뜻의 '땀땀모르페오!'가 고문자로 판각된 나무틀도 탁본해볼 수 있다. 암모나이트, 메머드 등이 어떻게 화석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공작소3에서 화석모형을 만들어 보면 궁금증 해결!

조류·화석·식물 표본 등 600여점 빼곡히 부모와 함께하는 화석 체험·게르 제작 등 인기 "유목문화 이해 좋은 기회" ...6월 17일까지

험관이다. 현재 수도권 울란바토르에 인구가 몰려있지만 대도시를 제외한 초원지대 유목민들은 아직 옛 조상의 원형을 지키고 살고 있다. 항상 이동해야 하는 유목민들답게 게르는 못 하나 없이 뼈대와 가죽으로만 설치, 해체되는 집이다. 그 안에도 최소한의 도구들만 갖춰져 있다. 하지만 라마불교를 믿는 몽골인들이기에 간소하건만 게르 북쪽에 불단을 모셔두는 것은 잊지 않는다. 모진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했던 공간인 셈이다.

로토케라투스, 티라노사우루스 등의 공룡 뼈와 발자국 화석을 숨겨뒀다. 각각 나눠준 삼과 도구를 이용해 모래로 덮여있는 곳에서 화석들을 파낸다. "아빠, 이걸 살타사우루스지?" "여기가 티라노사우루스지? 아니라 스테고사우루스 같아." 영민이(대전 유성초등 2)는 지금까지 만화나 과학서적을 통해 쌓아온 공룡지식을 쏟아 놓는다. 잘 아는 만큼 더 신나는 표정이다. "여러분들처럼 발굴 잘 한 사람들 처음 봤어요!" "에이, 아버지는 맨날 여기 보면서 뭘

준비된 몽골탐험은 여기까지다. 사실 '대탐험'이라고 할 만큼 시설의 규모가 큰 것은 아니다. 이 전시를 기획한 한국 환경생태연구소 이시원 전시관리소장은 "몽골의 생태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터전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전시의 의도"라고 설명한다. "몽골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몽골인들이 게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느껴주시고요, 공룡 화석을 보면서 고고학에 대한 조그만 관심부터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이 우리의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몽골의 야생동물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42)825-6480 글·사진=김강진 객원기자

통도사 구하문도회 소집공고

- ◆ 일 시 : 불기 2551년 3월 30일 오후 2시
- ◆ 장 소 :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 ◆ 안 건 : 통도사 주지 추천의 건

지난 2007년 3월 6일 영축총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차기 통도사 주지를 구하문도회에서 추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산중결의에 따라 구하문도회에서 통도사 주지를 추천하고자 문도회를 개최하오니, 종무가 다망하시더라도 문도회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년 3월 23일

구하문도회 문장 초우

벚꽃이 아름다운 절, 가족과 함께 하는 절 합천 청강사 벚꽃 산사 음악회

합천 허굴산 자락의 청정도량 청강사에서 벚꽃이 만개하는 즈음에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일상을 벗어난 고즈넉한 산사에서 음악의 선율과 함께 벚꽃의 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청강사 주지 혜 광 합장

- ◆ 일 시 : 2007년 4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
- ◆ 장 소 : 청강사 경내 (경남 합천군 대병면 장단리 산 67 ☎ 055)932-5706)
- ◆ 후 원 : 대병면 유관기관 및 단체 · 한국수자원공사 · 합천댐 관리단 · KT합천지점
- ◆ 출연진 : 피아노 연주 - 권상무 교수 · 대금 - 이승준 · 메조소프라노 - 김정미 · 가수 안치환 · 신명퍼포먼스 - 타오

※ 저녁산사는 기온이 낮습니다. 따뜻한 복장 준비 하세요!

